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신론 Theology

신론이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연구분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Theology is a major field of study within Christian theology, encompassing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the Christian God as revealed in the Bible. It deals with the essence and work of the triune God.

신론 주제들

기독교 신학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신론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의 본질
- 계시된 하나님의 정의
-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들
- 하나님의 명칭들
- 하나님의 속성:
 - 비공유적 속성(절대적 속성)
 - 공유적 속성(보편적 속성)
- 삼위일체
- 하나님의 사역
- 창조
- 섭리

Topics in Theology

The following are essential areas of theology in Christian theology:

- The Essence of God
- The Revealed Definition of God
- Arguments for God's Existence
- The Names of God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 The Attributes of God:
 - Incommunicable Attributes (Absolute Attributes)
 - Communicable Attributes (Universal Attributes)
- The Trinity
- The Works of God
- Creation
- Providence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즉 참된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현대신학자들의 신 개념

오늘날도 현대 신학자들의 설명에서 신 개념은 충분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 바르트 -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인식할 수 없는(*incognitio*) 초월적 하나님을 주장한다. 절대 타자(the Wholly Other)의 하나님을 말한다.
- 브루너 - 절대적인 인격자, 절대타자로서 초월성을 강조한다.
- 볼트만 - 하느님은 인간 삶에 대한 우리의 진술이다. 누군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적으로 이해한다.
- 티리히 - 신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신은 존재의 기반이라 한다.
- 폴 반 류렌 -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신의 죽음'을 주장한 알타이저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언어분석학적으로 볼 때 신 개념이란 무의미하다고 한다.
- 몰트만 - 미래에 약속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미래의 존재자, 세계 앞에 있는 존재자라고 한다.
-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 보편사적 초월과 역사의 종말에 가서 신으로 나타나는 분이라고 한다.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비판과 적용

현대 신학자들은 처음부터 신 개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형이상학적, 실존적, 세속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과연 이들의 신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얼핏 건질 것이 없겠으나,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떤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 단지 우리는 선별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성경의 눈으로 살펴서 도움이 된다면 이용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느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모든 것을 계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은 밝히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에 대해 불가해성은 주장하더라도 불가지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하느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식은 부분적이지만 참되고 진실하다.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루터의 표현을 따르면 ‘숨은 하느님’ (*deus absconditus*)이다. 스콜라주의자들도 본성 (*quid*, 하느님의 본질)과 속성 (*qualis*)을 구별하여 인간은 본질적인 존재 안에 계시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으나, 그가 자신의 신적인 속성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그의 본성과 본질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참으로 하느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해의 한계가 있다.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더듬을 수라도 있단 말인가?” (욥기 11:7) 이사야는 말한다. “하느님의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어떤 모습이 그를 닮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사야 40:18)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 계시된 하느님 (*deus revelatus*)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느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에 대하여 참된 하느님에 대한 진실 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느님을 안다고 하셨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3)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finitum non possit capere infinitum*). 칼빈은 하느님의 신성은 모든 인간의 감성들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오직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특별 계시로부터 그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본유적 혹은 생득적 지식

인간이 하느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계시와 접촉할 때 자발적으로 성장한다. 성령의 인도 하에 성화되어가는 이성의 작용으로 신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인간에게 심어진 종교의 씨(*religionis semen*)가 성령님의 영향 하에서 이 지식을 발생시킨다.

후천적 지식

이 지식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느님의 지식에 대한 의식적이며 끊임없는 추구의 결과로 생겨진다. 감각과 반성, 논구와 토의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고 인간 의지의 자발적인 탐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계시된 하나님의 정의

- 순수한 영
- 인격적인 분
- 무한히 완전하신 분
- 완전하게 단일하신 분

신의 존재 논증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길은 유명한 논증이다. 이 모든 논증들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중생한 사람들이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이런 논증들의 유익을 얻을수는 있다

1. 존재론적 논증 - 인간은 불완전하고 상호간에 관련이 있으므로 완전무결하다고 생각되는 것, 즉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2. 우주론적 논증 - 자연계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거쳐 계속하여 원인을 규명해 나간다면 최초의 제 1 원인으로서의 신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3. 목적론적 논증 - 자연이 어디까지나 목적에 적응한 질서를 지니고 있는 이상, 자연 전체의 설계자로서의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 자연신학적 논증이라고 한다.
4. 도덕적 논증 - 우리에게 그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도덕 법칙의 원천으로서 신을 생각할 수 있다.
5. 역사적 논증 - 모든 민족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예배나 제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 갖는 신에 대한 감정 즉 종교성(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으므로 신은 존재한다고 한다.
6. 미학적 논증 - 미술의 진리가 될 수 있으며 미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7. 지적설계 논증 - 신의 의도 즉 지적인 존재자의 설계에 따라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기에 신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8. 믿음의 유추 - 오직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로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되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명칭들

하나님은 여러 이름들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의 일면을 계시하신다.^[1]

1. 기본적인 구약의 이름

1) 엘, 엘로힘

'엘'은 '강한 자'란 뜻을 갖는 가장 단순한 이름으로서, 강하신 분으로서의 하느님을 나타낸다. 한편 '엘로힘'은 하느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 이름이며, 이 이름 어미(語尾)의 복수형은 장엄 복수(莊嚴 複數)로서 그분이 이방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경외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2) 야훼(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으로서 오직 하느님에게만 사용되는 고유명사이다(출애 3:14). 이 이름은 하느님의 자존성(自尊性)과 거룩성 및 영원 불변성을 강조한다.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특히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조로 사용된다.

3) 아도나이

'주'(主)라는 뜻을 갖는 이 이름은 인간에게도 사용되지만, 하느님에게 사용될 때는 인간을 포함한 전(全)피조 세계에 대한 소유자 혹은 통치자를 가리킨다.

2. 복합적인 구약의 이름 1) 엘의 복합어

- (1) 엘 쇠다이 — 전능하신 하느님(창세 17:1;28:3).
- (2) 엘 엘론 —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창세 14:19).
- (3) 엘 올람 — 영원하신 하느님(사 40:28).
- (4) 엘 로이 — 감찰하시는 하느님(창 16:13).

2) 야훼의 복합어

- (1) 야훼 이레 — 야훼께서 준비하심(창 22:14).
- (2) 야훼 니씨 — 야훼는 나의 깃발(출애 17:15).
- (3) 야훼 샬롬 — 야훼는 나의 평화(판관 6:24).
- (4) 야훼 라파 — 야훼께서 치료하심(출애 15:26).
- (5) 야훼 삼마 — 야훼, 여기 계심(에제 48:35).
- (6) 야훼 치드케누 — 야훼, 우리를 되살려주시는 이(예레 23:6).
- (7) 야훼 로이 — 야훼는 나의 목자(시편 23:1).
- (8) 야훼 체바오트 — 만군의 야훼(1 사무 1:3).
- (9) 야훼 마케 — 멸망시키시는 야훼(에제 7:8).
- (10) 야훼 엘 계물로트 — 야훼는 보복의 하느님이심(예레 51:56).
- (11) 야훼 메카디쉬켄 —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출애 31:13).

3. 신약의 이름

1) 데오스(Θ ε ός)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구약의 '엘'이나 '엘로힘'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엘'이나 '엘로힘'은 민족적 종교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과 관계하여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신자 개인과 관계하여 사용된다.

2) 쿼리오스(Κύριος)

'주님'을 의미하며 구약의 아도나이와 동일하다. 신약에서는 성부에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사용된다.

3) 파테르(Πατήρ)

'아버지'란 의미가 있으며, 신자 개인에게 영적 혹은 육적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로서 성부 하느님을 지칭한다(마태 6:6; 로마 8:15).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attributes of God)이란 기독교 신학에서 논의되는 하느님의 고유한 속성(성품)이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공유적 속성(인간이 가질수 있는 성품)과 비공유적 속성(인간이 가질수 없는)을 구분한다.^[2] 도널드 맥로드는 이런 구분은 인위적이며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하느님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요,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하느님의 속성은 이해할 수 없으며, 편재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5] 그러나 이견해는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비공유적인 속성

독립성 혹은 자존성

하느님은 다른 피조된 존재의 도움이 필요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독립하며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성

하느님의 영원이란 시간을 넘어서는 그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시편 90:2에서 웨인 그루텐은 하느님은 시작도, 끝도, 혹은 그의 존재의 이어지는 순간도 없으시다. 그는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모든 시간을 질적으로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시간속에서 사건과 시간속에서 행위를 보신다고 진술한다.^[7] 계시록에서는 그를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표현한다. 하느님의 영원성은 그의 무한성의 개념이다.

불변성

무한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공유적인 속성

- 하나님의 지식
- 하나님의 지혜
- 하나님의 선
- 하나님의 사랑
- 하나님의 거룩하심
- 하나님의 의
- 하나님의 진실성
- 하나님의 주권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 하나님의 자비 - 하나님의 자비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출애굽기 34:5-6 에서 야훼 하느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느님이시다라고 말한다.Exodus 34:5-6

•

하나님의 창조

이승구 박사의 주장을 다음과 같다.

- 창조

신조들과 신앙고백서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대 교회의 신조들과 종교개혁 당시의 신앙고백문들을 제시하신 분들은 창조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말했다고 할 수 있다.

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②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교부들과 개혁자들은 성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③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결국에는 창조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존재와 형태와 외관과 다양한 기능들을 부여해 주셨다. ④ 섭리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유지시키시며 통치하셔서, 인간들을 위해 있게 하시며, 다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

여기까지는 창조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고대 신조들과 종교개혁기의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를 더해 ⑤ 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창조를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앞의 네 가지를 성경에서 이끌어낸 창조에 대한 가르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의 함의

우선 위의 ①~④까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주장하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이런 의미의 창조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존재하셨었다고 단언해야 한다. 만일에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라고 하든지, 창조자와 피조계는 이를 테면 능산적 자연(natura naturans)과 소산적 자연(natura naturata)으로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모두가 자연이라고 한다든지 (Baruch Spinoza)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믿는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조되지 않으셨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홀로 삼위일체적 교제를 나누며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에 따라서 그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유신론적 창조 이해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전통적인 서구 철학적 유신론(the classic theism)인데, 이를 말하면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삼위일체 개념을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 중의 상당수는 끝까지 삼위일체 개념을 넣지 말고 생각하자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하는 유신론을 기독교 유신론(the Christian theism)이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거나 지나치게 먼저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접근은 창조에 대해서도 다양한 잘못된 이해를 이끌어 내며, 결국 하나님 이해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로 분명히 하였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창조 이전”이 있었으며, 그 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만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흔히 성경에서 “하늘과 땅” (天地)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그저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온 세상 모든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은 피조계 밖에 있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오성형식(悟性形式)이므로 그저 사유의 틀일 뿐 사물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사유하려고 할 때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가지고 사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칸트적인 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간과 함께(cum tempore) 창조하셨다는 어거스틴적인 이해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진정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적 창조 신앙의 출발점이다.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둘째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했지만, 창조사역에서의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을 줄여서 말할 때,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을 가지고 성부께서만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성부와 함께 성자께서 창조의 과정에 함께 하셨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이 그로(즉, 요 1:1 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 말씀으로 언급된 성자)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3)고 말한다. 또한 10 절에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한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언급한 후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6)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창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 104:30)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창세기 1 장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창 1:2)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과 창조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연결지어 이해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말씀으로 언급된 성자를, 창조의 객관적 원리라고 하고, 성령님을 창조의 주관적 원리라고 표현해 오고 있다.

셋째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피조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이다. 이 때 우리가 언급할 만한 유명한 구절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롬 11:36)이라는 말씀이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기원하였으며, 주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되었으며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일종의 범신론(汎神論, pantheism)이나 그것을 현대적으로 보충한 만유재신론(萬有在神論, panentheism)으로 오해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는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필연성과 비교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우연성(偶然性)을 강조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연히 있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 존재(必然的 存在)이신데 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이니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옛날부터 그렇게 표현해 온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들이 신에게 속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것이다. 피조물들이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합류하는 것 같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만유재신론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와 존재와 양상을 지닌 존재들은 그 다원성과 다수성과 독특성이 다 인정되나,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에 비추어 우리의 당위를 찾는 방식의 윤리적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판단 받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였는지가 나타나게 된다.

넷째로, 창조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기독교적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만 하시고 그냥 자연법칙을 따르게 하셨다는 이신론(理神論, deism), 즉 자연신론(自然神論)은 기독교적인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섭리가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창조론은 아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는 성경에서는 없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성경적 근거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많이 나타나 있다.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정의한다면 하느님은 본질(essence)에서 한분이지만 인격적 존재(위격)에서는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이라는 삼위(3 Persons, 세 위격, 세 인격)로 존재하며 영광과 권위와 권능에서는 동일하시다라는 것이다. 삼위일체라는 구약에서 하느님의 복수적 형태, 여호와와 그의 영, 하느님과 주, 그리고 이사야서 53 장가 같은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삼위일체의 각각의 존칭이 나타나는 곳은 신약성경 2 고린 13: 13 인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라는 진술에서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후대 교회에서 사용하였다. 또 친구파를 막론한 대다수의 기독교는 삼위에 대한 개념이 요한복음서 등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함(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옴)을 주장하며 옹호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325 년에 제 1 차 니케아 공의회와 381 년 콘스탄티노폴리스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

1-201-852-3600 / 1-917-530-1991 / gtstheology@gmail.com

공의회에서 정통 교리로 확정하면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로서 처음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성자, 즉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경전 중에서 요한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와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여 삼위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사상적 개념으로는 기독교 초기의 환경이었던 유대교, 다신론, 영지주의 등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로 보내어졌고, 아들이 이 땅에 존재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고 부활한 후에도 함께 하시는 주, 즉 기독교가 고백하는 주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요청되었다. 특히 영지주의의 유출설과 마르키온주의의 이원론은 그리스도론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개념이 필요했다. 이 새로운 개념은 흔히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동일본질이라는 예수와 성부가 동일 본질이라는 관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논리적으로 체계화 시켜 삼위일체로써 확정했다. 니케아 공의회 이전부터 교부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던 유사본질의 “동질적이고 하나의 실체로 된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념에 도전하여 삼위일체를 부인한 아리우스는 제 1차 니케아 공의회에 의하여 파문되었다.

하나님의 사역

- 작정
- 예정
- 창조
- 섭리